

2023. 10. 20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0일 오전 10:4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문화정책과장

전재명

2133-2510

문화정책팀장

김정은

2133-251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6쪽

관련홈페이지
(서울문화포털)

<http://culture.seoul.go.kr>

서울시, 올해의 문화예술인 11인에 ‘서울시 문화상’ 시상... ‘뉴진스’ 키워넨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수상자 명단에 이름 올려

-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‘제72회 서울시 문화상’ 수상자 발표
- 올해 88명 후보자 중 11개 부문 선정...10.20.(금) 시상식 개최
- 대중예술 부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, 문화예술후원 부문 효성화학(주) 등 수상

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<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>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10.20.(금) 시상식을 개최한다.

○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 제정된 이래,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수여해 온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. 지난해까지 총 730명의 문화예술 공로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.

올해 <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>은 지난 6.19.(월)~8.11.(금)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하여, 14개 분야 총 88명의 후보자의 접수를 받았다. 서울시 문화상은 일반시민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기관·단체·협회·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자를 접수받는 만큼 접수 자체도 의미가 깊다.

□ 심사는 전문가 총 70명(14개 각 분야별 5명씩)으로 구성된 ‘예비심사위원회’에서 최종 수상부문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, 분야별 위원 및 서울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‘최종 공적심사위원회’의 심사를 진행했다.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의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.

○ <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>의 심사는 ▲최근 10년간 문화분야 발전 기여도 ▲서울시민(지역) 문화생활 향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,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를 제외하는 등 새로운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힘썼다.

□ 올해 문화상은 11개 분야(학술, 미술, 국악, 무용, 연극, 대중예술, 문화산업, 문화재, 관광, 독서문화, 문화예술후원)에서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. 수상자는 ▲학술(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) ▲미술(박병혁 문화예술그룹 ism 대표) ▲국악(원장현 금현국악원 원장) ▲무용(장광열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대표) ▲연극(고희경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) ▲대중예술(민희진 어도어 대표) ▲문화산업(히든어스<서울의 탄생>(KBS)) ▲문화재(김기호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) ▲관광(전춘섭 (주)세계투어 회장) ▲독서문화((사)청송교육문화진흥회) ▲문화예술후원(효성화학(주))이다.

※ 14개 분야 중 문학, 서양음악, 체육 분야는 수상자 없음 결정

○ **학술 부문** 수상자인 이향숙(이화여자대학교 교수)은 대한수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, ‘공개키 암호 연구개발’을 통해 국내외 암호학계 활성화 및 후속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.

○ **미술 부문** 수상자인 박병혁(문화예술그룹 ism대표)은 ‘명인명춘 화보집’, ‘한강 르네상스 화보집’ 등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. 서울 쪽방촌 예술프로그램 ‘쪽방촌 사람들’을 추진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.

- **국악 부문** 수상자인 **원장현**(금현국악원 원장)은 ‘원장현류 대금산조’의 창시자로 대금산조, 거문고, 태평소 등 국악 보존에 힘써왔다.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활동 및 한국문화재단 ‘한국의 집’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약해왔다.
- **무용 부문** 수상자인 **장광열**(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)은 20여년 간 무용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‘서울 국제 즉흥 춤 축제’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켰다. 공연예술전문지 ‘객석’에서 기자 및 편집장을 역임했으며, 현재 활발한 춤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다.
- **연극 부문** 수상자인 **고희경**(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)은 예술의전당, 디큐브 아트센터를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. 서울의 연극·뮤지컬 등 문화인프라 발전과 향상을 위해 힘써왔고 정부 등 관련 예술기관 위원 활동을 통해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- **대중예술 부문** 수상자인 **민희진**(어도어 대표)은 ‘K팝의 혁신’으로 불리는 걸그룹 ‘뉴진스’의 총괄 프로듀서로, K팝 및 대중예술의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다.
- **문화산업 부문** 수상은 KBS 히든어스<서울의 탄생>에게 돌아갔다. 2023년 방영된 KBS의 다큐멘터리로 1억 7천만 년 역사의 서울 화강암의 형성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했다. 국내 방송 최초로 8K 제작 및 심도 깊은 취재로 과학적 정확성을 높여 서울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.
- **문화재 부문** 수상자인 **김기호 장인**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보유자로서, 조선 철종조 왕실경공장으로부터 내려져온 금박장을 5대에 걸쳐 전승중이다. 북촌에 공방을 열어 운영하는 등, 우리나라 전통 공예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

- **관광 부문 수상자인 전춘섭((주)세계투어 회장)**은 국제적인 행사 대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고, 서울국제관광박람회인 SITM 개최를 위해 힘써 한국 관광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.
 - **독서문화 부문 수상은 (사)청송교육문화진흥회에** 돌아갔다.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, 점자 교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.
 - **문화예술후원 부문 수상은 효성화학(주)에** 돌아갔다.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에 입주한 장애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. 또한 장애·비장애인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데도 힘썼다.
- **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올해도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신 많은 분들께 〈서울시 문화상〉 수상의 영예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”며 “앞으로도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‘동행매력특별시’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**

붙임 1. 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사항 1부. 끝.

[붙임]

□ 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 명단 : 총 11인, 11개 분야

연번	분야	성명 (출생연도)	소 속	주요 공적
1	학술	 이향숙(1963)	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	대한수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, 공개키 암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암호학계 활성화 및 후속연구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
2	미술	 박병혁(1964)	문화예술그룹 ism 대표	명인명촌 화보집, 한강 르네상스 화보집 등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, 서울 쪽방촌 예술 프로그램 '쪽방촌 사람들'을 추진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
3	국악	 원장현(1951)	금현국악원 원장	'원장현류 대금산조' 창시자로 대금산조, 거문고, 태평소 등 국악 보존에 힘쓰고,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활동 및 한국문화재단 '한국의 집'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
4	무용	 장광열(1958)	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대표	20년 넘게 무용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'서울국제즉흥춤축제'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켰으며, 공연예술 전문지 '객석'에서 기자 및 편집장으로 춤 비평 활동을 하며 무용 분야의 지속 발전에 크게 기여
5	연극	 고희경(1963)	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	예술의 전당, 디큐브 아트센터를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서울 연극·뮤지컬 문화 인프라 향상에 힘썼으며, 정부 등 관련 예술 기관 위원 활동을 통해 연극·뮤지컬 발전에 크게 기여

연번	분야	성명 (출생연도)	소 속	주요 공적
6	대중 예술	 민희진(1979)	어도어 대표	대한민국 K팝의 혁신으로 불리는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중예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서울 문화 발전 및 세계화에 크게 기여
7	문화 산업	 히든어스 <서울의 탄생> (2023)	TV프로그램 (KBS)	2023년 KBS의 다큐멘터리로, 1억 7천만 년 전 서울 화강암의 형성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하였으며, 국내 방송 최초로 8K 제작 및 심도깊은 취재로 과학적 정확성을 높여 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
8	문화재	 김기호(1968)	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	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서 조선 철종조 왕실 경공장으로 이어내려오는 금박장을 5대에 걸쳐 전승 중이며, 북촌에 공방을 열어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승보존에 크게 기여
9	관광	 전춘섭(1954)	세계투어 회장	국제적인 행사 대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서울국제관광박람회인 SITM 개최에 힘써 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크게 기여
10	독서 문화	 (사)청송교육 문화진흥회	-	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고, 점자교육 및 도서관 서비스제공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마련에 크게 기여
11	문화 예술 후원	HYOSUNG 효성화학(주)	-	장애 예술인 창작 레지던시의 입주 장애예술가들을 지속 후원하여 장애·비장애인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등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